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오늘 출범

### 중립 인사 7명, 숙의형 조사방식 적용 최영태 위원장 “광주만의 협치모델 창출 최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7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계획과 진행을 맡아 그 결과를 광주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6일 광주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지자체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지역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의 뜻을 묻는 작업이다.

최영태 광주시 권익위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광주에 대한 투쟁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으며 광주만의 새로운 협치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공론화위원장) ▲박강희 변호사(법률) ▲홍기학 동신대 교수(조사통계) ▲김기태 호남대 교수-김은희 전남대 교수(소통) ▲김미경 조선대 교수-박태순 사회과학연구원 소장(감등관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찬·

반 양측으로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 뒤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인사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준비를 위한 설계작업, 시민에 대한 홍보,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여론 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지역과 연령, 지하철 전·반 의사 등을 고려해 300여명을 선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2주 정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11월 초 1박 2일 합숙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전달과 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지하철 건설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오는 11월 10일까지 광주시장에게 권고하며, 공론화 설계와 홍보 등에 1개월, 여론조사부터 최종 숙

의조사까지 1개월 등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준비했던 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표 정영일)도 “원칙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혜와 지성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광주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영태 위원장은 지난 12일 ▲중립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 구성 ▲숙의형 조사방식을 적용 ▲11월 10일까지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과 광주시장 권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양측의 조건 없는 수용 등을 광주시와 시민단체에 제안했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동 스쿠터·킥보드·카트 한 자리에”

### 영광서 소형전기차엑스포

전동 스쿠터·킥보드·휠·카트 등 소형 전기자동차가 한 자리에 모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 최초 e-모빌리티산업 박람회인 ‘2018 영광 국제 스마트e-모빌리티 엑스포’가 다음 달 11~14일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열린다. e-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카트 등이 대표적이다. 1~2인기구 증가와 사회 고령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 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영광군·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이탈리아·독일 등 국내외 18개국 120개사가 참여한다.

‘즐거라! e-모빌리티, 누려라 eco-life(에코 라이프)’를 주제로 미래 자동

차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시승 체험은 물론 구매도 할 수 있는 종합 마케팅 행사로 진행한다. 신제품 발표회 등 홍보 행사,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투자상담회도 열린다.

정부 부처에서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국제 학술 행사로 산업 추세를 공유한다.

e-모빌리티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블랙데이’,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학생과 프로 선수가 참여하는 드론 경주대회와 체험행사, 지역 과학영재들의 과학 축제, 로봇 케이팝 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틈새시장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2012년부터 육성하고 있다. 영광 대마산단에는 연구센터, 공동 연구시설, 실내외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역대 광주시장들이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광주시 초청으로 '역대 시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광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장현, 강영기, 김동완, 최인기, 이용섭, 송연중, 박광태, 고재우, 강운태 전·현직시장.

## 역대 광주시장들, 광주 발전 힘 모은다

### 역대시장 초청 시정 간담회 수영대회 성공 개최 등 논의

역대 광주시장들이 민선 7기 광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역대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5년 6월 30일 이후 3년 2개월여 만이다.

역대 시장들은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자동차산업-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삼성전장산업 유치 노력 전개, 문화산업 기술을 활용한 전문 일자리 창출, 지역 금융권 투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역대시장 초청 시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시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고,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지역사회의 역량과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2대 최인기 시장을 비롯해 제4대 김동환, 제5대 강영기, 제7대 송연중, 제8대 고재우, 제9~10대 박광태, 제6·11대 강운태, 제12대 윤장현 시장 등 8명의 역대 시장이 참석해 광주 발전을 위한 조언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역대시장들은 산적한 광주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한편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광주 발전을 위

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전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은 광주 주요지역을 경유하는 순환선으로 시민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고재우 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 서면 1호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시장은 “기후, 미세먼지 등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으니, 전기버스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정 시민단체가 지역 모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용섭 시장 독·헝가리 방문 선진 교통시스템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유럽의 선진 교통도시인 독일 뮌헨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유럽의 선진 교통시스템, 특히 저심도 도시철도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뮌헨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주도이자 금융·상업·교통 중심지로 14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8개의 도시철도, 13개의 트램,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운행중이다. 부다페스트는 인구 174만명이 거주하는 헝가리 수도로, 1896년 세계 최초 전기로 운행한 도시철도 1호선과 2014년 개통된 4호선이 저심도방식으로 건설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노사민정 손잡고 산업평화 실천 선언

### 화순서...일자리 창출 앞장

전남 노사민정이 화순에서 산업평화 실천을 선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16일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남본부 주관으로 지난 15일 화순 만연산에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민수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본부 회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7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률 제

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노사민정이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 노사민정이 화합과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협력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10년 연속 최우수 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평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선 7기 들어 76개 기업과 3조5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도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도록 돕겠다”며 “노사민정이 상생 문화 정착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데 힘을 모아달라”를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민주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자치회 결성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정당정치에 뿌리인 지역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했다.

16일 민주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당원들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근본인 만큼 당원들의 자발적인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광산구갑지역자치회'를 구성했다.

이번 구성된 '광산구갑지역자치회'는 61명의 권리당원들이 지난 7월 추진위원회 발족, 12차례 회의를 거친 후 지

난 8일 2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광산구갑지역자치회'에 선임된 이계봉 회장은 “당원 중심의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현안에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갑지역자치회”는 지난 1월 민주당이 정당혁신을 위해 신설한 당구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송파을당원자치회’에 이어 두 번째로 발족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본 투시도는 고가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슈빌 점포, 모아엘가 푸른, 대성베르빌 점포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터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